



“승리를 향해 쫓라!”

지난 24일 민해광장에서 열린 새내기농구대회 예선전에서 학생들이 끝대를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다. 결승전은 오는 4월 4일 열릴 예정이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서울대와 학술 교류 협정 체결 여름 계절학기부터 학점 교류 가능

동국대학교·서울대학교 학술교류 협정 조인식이 오늘(27일) 오후 12시 30분, 신라호텔 오키드룸에서 열린다.

우리학교와 서울대학교의 학술교류 양 대학은 △학생 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 △교직원 상호교류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 자료, 출판물 및 정보 상호 교환 △시설물 상호 이용 △국제협력 사업 공동 수행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정으로 인해 우리학교(서울대학교) 재학생은 서울대학교(우리학교)에 개설된 강의를 듣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교류를 하게 된다. 이는 이번 여름 계절학기부터 시행된다.

이상일 교무처장(사회환경시스템공학)은 이번 협정의 의의에 대해 “서울대학교가 우리 대학의 독특한 학문적 전통과 역량을 인정한 결과이며, 양교의 학문분야가 실제로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우리대학으로서는 서울대의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겨울방학 중 우리학교 교무처는 경희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 등 8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은 기존의 건국대, 한국외대, 국민대 3개 대학에서 12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에베레스트 원정 발대식 지난 21일 열려



건학 100주년 기념 에베레스트 원정 발대식과 박영석(체고 91졸) 문운 산악그랜드슬램 달성 기념 동판부조 제막식이 지난 21일 열렸다.

제막식은 홍기삼 총장, 이사장 현해스님, 이인정 대한산악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원정대는 지난 25일 등반을 시작했으며 개교기념일인 5월 8일 정상에 등정할 예정이다.

농구부, 몽골 국제 농구대회 우승

우리학교 농구부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몽골 건국 800주년 기념 국제 농구대회’에서 전승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는 한국과 러시아, 몽골, 몽골 상비군 팀이 참가했으며 우리학교 농구부는 결승전에서 몽골 상비군과 맞붙어 77-72로 승리를 이끌었다. 대회 마지막 날 치러진 3점슛 대회와 덩크슛 대회에서도 우리학교 기승호 선수와 강창모선수가 각각 우승과 2위를 차지했다.

생협 법인 창립 2주년 행사 개최 각종 할인행사 실시

우리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은 생협 법인 창립 2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31일에는 △상복원 2층 학생식당 △동국관 지하식당 △상복원 3층 교직원 식당의 기념일 특식에 음료와 떡이 함께 준비된다.

다음달 3일부터 5일간 식권 판매대와 매점에서 나눠주는 응모권을 통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경품은 △1등(2명)=실크로드 불교문화유적답사 △2등(1명)=일본 배낭 여행 4박 5일 △3등(10명)=복사카드 5,000원권 10매 △4등(130명)=1만원 할인권 2매, 매장 이용권, 증명사진 무료이용권, 명함무료제작 등이다. 단, 3등 이상 당첨자는 생협 조합원에 한한다. 문화관 그림 원화에서는 △테이크아웃 커피(1+1행사) △삼스타치 set매뉴 주문시 치킨버거 무료 △통치킨+콜라 2잔(9,500원->6,500원) △짜이버거+콜라 무료(3,500원->2,500원) 할인 행사를 한다.

또한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는 △매점=자체 할인 및 업체 할인 품목 위주 판매 △서점=연합출판사 베스트셀러·대학생 권장도서 할인(30%) △사무국=4.19기념 동국인 등반대회 음료지원 △로즈버드=메모지·스카치 테이프 한정 증정 △사진관=필름할인 판매 및 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증정을 한다.

본교 직원인사 발령

우리학교가 지난 21일 직원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안상호 △문화과학원 행정지원실=김영훈 △경영대학원 및 경영대학 행정지원실=원충희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박원규 △국제교육원 국제교류팀=송민수 △교양교육원 행정지원실=황병걸 △교무처 학생선발팀=김형배 △총무처 재무회계팀=김옥자 △문화예술대학원 및 예술대학 행정지원실=장동미이다.

강호덕 교수 황사 방지 포플러 품종 개발

우리학교 강호덕(산림자원학) 교수가 사막지역에서 1년에 4m 이상 자라는 포플러 품종 ‘북황’을 개발했다. 이는 앞으로 황사·사막화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7면

등록금 협상 어디까지 왔나

오늘 3차 원탁테이블 진행 ... 향후 결과에 학내 구성원 관심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 등록금 인상문제에 대해 총학생회와 학교 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총학생회의 성명서 발표 이후 학교 측과 총학생회 간에 등록금 인상 문제 협의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총학생회 측은 “성명서 발표이후 학교 측에 계속 집의서를 전달하면서 협상자리를 만들려고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 부당성에 대해 일리는 자리를 마련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오늘(27일) 학교 측과 3차 원탁테이블을 진행하고, 이와 함께 오는 29일에는 오후 6시에 문화관 세미나3실에서 학생전대표자 회의를 가질 예정

이다.

이와 관련해 우영진 부총학생회장(기계공4)은 “29일 열리는 학생전대표회의를 통해 학생대표자들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4월 4일 학생총회를 열어 많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그동안 총학생회가 집의한 부분은 성실히 답변 해줬다”며 “홈페이지에 예산안 공개 등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생들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등록금 8.5%인상에 관해 배주형(물리3) 군은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인상율에 비해 실질적으로 강의환경이 개선되는 것 같지 않다”며 “등록금 인상이 부당할 때 학생들이 투쟁하지 않으면 학교는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며 인상 반대

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조소희(독문2) 양은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을 주장하려면 학교와의 대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우선 대화로 풀어나가되 불가피 할 경우 투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올해 등록금이 12% 인상된 연세대는 지난 23일 총학생회가 학생총회를 열어 전교생의 10%이상인 2,140명이 참여해 총회가 성사됐으며, 총회에 참여한 일반 학생들은 등록금 5%인하안을 주장했고 이에 1,140명이 찬성하는 등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29일까지 학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분관장직접거어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등록금이 7.83% 인상된 서강대의 경우 지난 1월 3일 6차 등록금 협의회

에서 학교 측이 8.29%인상을 제시하고 총학생회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협상이 결렬됐고, 현재 7.83% 등록금 인상이 고지된 상황이다. 서강대 총학생회는 지난 21일 삼보일배를 통해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 서강대 조수경(정외4) 총학생회장은 7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교와 총학생회간의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의견 차와 입장은 오늘 열리는 3차 원탁테이블이 진행된 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인상 문제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과 강의환경 개선의 명목으로 책정된 등록금 인상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학교와 총학생회간의 지속적인 논의와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금주의 동국인

‘마라톤 전도사’ 최일우 직원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 육상 장거리 금메달리스트인 에밀 자토펙은 42.195km를 달리는 이유를 이 한 문장으로 설명했다. 백상마라톤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의 최일우 과장 역시 ‘마라톤 전도사’ 중 한사람으로 꼽힌다.

백상마라톤클럽은 작년 4월 우리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수 중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결성한 모임으로 그는 현재 클럽에서 총무 일을 맡고 있다. 3년 전 몸이 붙어 건강에 이상을 느끼면서부터 마라톤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는 마라톤을 시작한 후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에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한다. “마라톤을 시작한 이후부터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마라톤 예찬론을 펴기 시작한다.

자신의 발로 직접 움직이며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마라톤의 묘한 매력이라 말하는 최 과장. 그는 마라톤을 하고 싶지만 선뜻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달리다 보면 달리는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라며 일단 바깥으로 나가 달려보기를 권한다. 42.195km를 3시간 안에 완주하는 것을 뜻하는 ‘서브쓰리’는 아마추어 러너인 그가 품고 있는 큰 꿈이다. 서브쓰리를 달성했다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현재 완주 기록이 3시간 30분이라 30분만 단축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며 웃는다.

인간은 달리면서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그의 목표는 서브쓰리만이 아니다. “오는 5월이나 6월중 울트라 마라톤에 참여해 완주하는 목표를 세우고 1km를 뛸 때마다 천원씩 발전기금을 내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학교 사랑을 실천하며 달리고 싶다는 그의 땀 한 방울이 동국 100주년의 시작을 찬란히 빛내고 있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동국 100년, 맑은소리 좋은생각

아름다운 시간

백 년 동안 몸을 풀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동국의 자식들
해도 달도 그 아래선 빛을 잃는다

동국인들이여!
의욕과 긍지로 새벽을 열어
성취의 보람으로 하루를 쌓자
의지의 배움길엔 피로조차 달콤하고

다시 한 세기가 그대들로부터 이룩되리라
자, 받으라!

아름다운 시간이 그대에게 왔다.



서석화
학부모·시인



동국 100년, 맑은 소리 좋은 생각 원고모집

대상 학생, 교수, 직원, 동문, 학부모 등 모든 동국 가족
내용 건학 100주년을 자축하며, 동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국발전을 위한 제언 등 맑은 소리 좋은 생각의 기회 취지에 어울리는 내용

형식 자유 분량 100글자 안팎 원고 마감 2006년 4월 30일까지(1차 마감)
원고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전자우편) dgupress@dongguk.edu
(교내네트워크) 핸드오피스 전자우편 수신 : 동대신문사 부국장 객우영

원고료와 부상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잘 된 원고를 골라 총 상금 100만원(드림나다.감동상 50만원, 자랑상 30만원, 도전상 20만원)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신문사(☎02-2260-3491)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420호 지식정보지원 지정 기사에서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김종철 팀장을 이도규 팀장으로 바로잡습니다.

현해스님 후임에 정념스님 선임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정관개정 승인

서울캠·경주캠·의료원 각각 자율경영체제로 운영

지난 21일 본관 교무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17차 이사회에서 현해스님 후임으로 정념스님(월정사 주지)이 선출됐다. 이사회 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현해스님 후임에 정념스님 선출이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교육이사인 지관 스님 후임으로는 범여스님과 보원스님이 추천됐다. 그 중 범여스님은 교육경력 3년 이상 있는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관은 학교법인 정관준칙이 폐지됨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절차 삭제 △경주 캠퍼스 및 의료원 자율경영체제 근거 마련 △대학 및 불교병원 직제 규정의 최소화를 통한 효율적 직제 개편 도모 △서울강남한방병원의

폐업 처리에 따른 정관정원 조정을 사유로 개정하게 됐다.

또한 정관개정이 승인됐다. 정관 개정안이 교육부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서울 캠퍼스와 경주 캠퍼스, 의료원이 각각 자율경영체제로 운영되며, 서울캠퍼스에 입학처를 신설하고 기존에 기획처에서 담당하던 교원인사업무를 교무처로 이관하게 된다.

경주캠퍼스는 연구처를 총장직속조직의 중앙지원조직으로 변경하고 여학생실을 개편한다. 의료원 분야는 의무부총장제를 신설해 대학 의학계열과 의료원, 일산불교병원에 관한 직무를 의무부총장이 담당하게 된다.

세부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에서 임원의 해임 및 이사장 취임 시 관할청의



지난 21일 열린 제 217차 이사회에서 이사선임, 정관개정 등의 안건이 승인됐다.

승인 절차 삭제 △제32조 이사회

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조항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의 예외조항 삭제 △제90조 총장 등 조항에 의학계열, 의료원, 일산불교병원에 관한 사항을 의무부총장이 담당 의무부총장 세부조항 신설 △제93조 대학원, 대학의 사무조직조항에서 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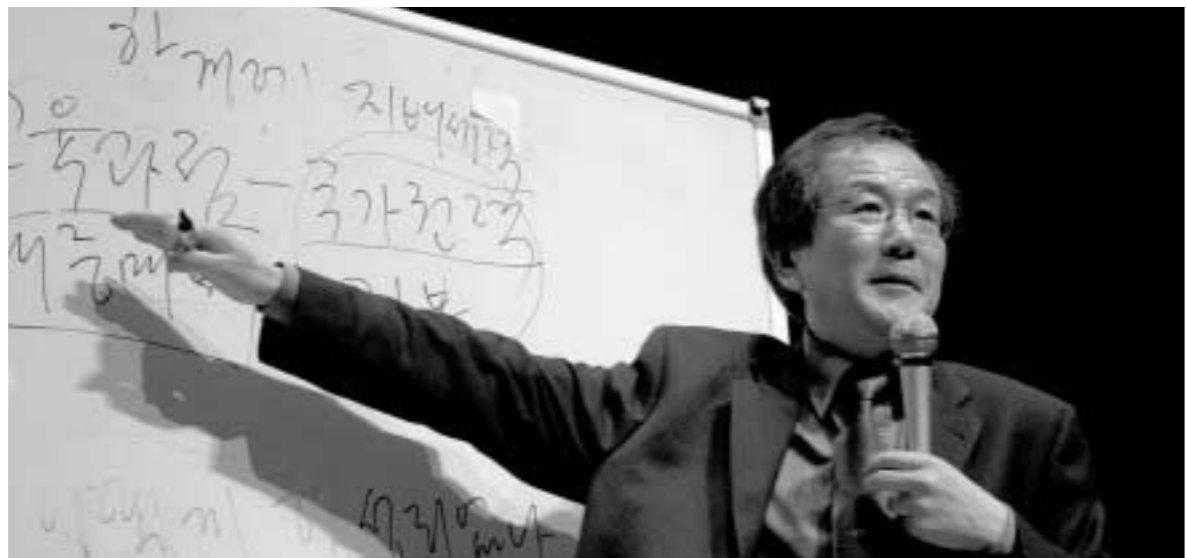
간강좌 조항을 폐지(다만, 직제규정에 명시 후 한시적으로 운영) △제95조 의료원 조항 세부조항으로 서울강남한방병원의 불교병원 이 전과 폐업에 따라 '호'가 삭제 및 변경됐다.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명진관·박물관 개선공사 시행

시설관리팀은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명진관 바닥 환경개선공사를 한다. 기존의 노화된 콘크리트 바닥을 명진관 건물과 같은 재질로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주출입구에는 교표를 이미지처리한다. 이번 공사로 오는 31일부터 주출입구의 통행이 통제된다.

박물관 전시실 환경개선공사는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시행된다. △전시실 내부 천정 및 벽체 철거후 신설 △전시실 내부 조도확보 및 전시실 조명용 설치공사 △1·2층 전시실 입구 출입문 교체 등이 이루어진다.



"이시대 지식인의 입지" ...

지난 22일 본관 중강당에서 '홍세화가 말하는 대학생 ... 지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나는 피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인 홍세화 씨의 강연회가 열렸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중국 동문회 1억 약정

중국 동문회(회장=임영호, 행정 78졸)가 건학 100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발전기금 1억 원을 약정했다.

또한 지난 6일 황준익(불교 06졸) 동문이 2천만 원을, 지난 8일에는 구자선(경영 81졸) 동문이 1억 원을, 9일에는 문화예술대학원 김성호 총동창회장이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1420호 강정구 천막강연 기사에서 '이윤'을 '이운'으로 정정합니다. 또한 이윤의 의견을 '한국 전쟁의 책임을 북한에만 있다고 물이기는 보수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강정구 교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로 비로 집습니다.

동약로

예측불허

"옛, 오늘 경제사회 강의는 김희욱 법무부차관인데... 저 사람은 누구지?"

"문화예술... 저번 주에는 다음 주에 와야 될 강사가 오더니, 이번 주도 바뀌었어?"

"21세기 리더십" 강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2주차 '문화예술', '경제사회', '과학기술'의 강사가 모두 바뀐 데

어서 3주차에도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강사가 예정과 달랐던 것이다.

지금까지 예정대로 이뤄진 수업은 우리 학교 교수들이 진행한 첫째 주 오리엔테이션과, 2주차 '경제사회'의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장의 강의뿐이다. 게다가 '문화예술'의 경우 2주차 원래 예정됐던 신경림 시인 대신에 4주차 강사로 예정됐던 은희경 소설가가 강의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강의내용이 변경된다.

"21세기 리더십" 강의는 분야별로 문화예술, 경제사회, 과학기술 각 1개의 강좌가 이번 학기부터 개설됐다. 학생들이 학업 및 인생목표를 설계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

움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개설되어, 각계의 권위자 및 사회저명인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매주 다른 강사가 가르친다.

세 강의는 수강신청 전부터 강의계획서에 각 주의 정확한 강사명을 알려 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정한 강사의 강의를 듣고 싶었던 학생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21세기 리더십' 강의를 담당하는 학교에서는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들이 모두 바뀐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예정보다 바뀌는 일은 언제나 가능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원래 예정됐던 김희욱 법무부차관이 갑작스레 강의를 취소해 2주차 '경제

사회'의 강의를 한 이순영 한중대 총장의 경우, 강의 중 "어제 저녁에야 강의를 부탁 받았다"고 말했다. 하룻밤 사이 준비한 강의가 과연 얼마나 양질의 수업이었을지는 의문스럽다.

이번 '21세기 리더십' 강의를 기획하고 섭외하는 과정에서 주최측은 지난 겨울방학 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개설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학기 중에도 강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회전문대

늦은 이사



○...각 단과대 곳곳의 사물함에 이전 주인이 사물함을 비우지 않아 새 주인이 남겨놓은 쪽지.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왓, "오늘 내일 미루면 내 것이요(!)"

블로깅생

○...사이버강의는 세월의 힘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우리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강의가 대부분 2004년 촬영하고 강의한 버전으로 3년째 이용되고 있다고.

학기가 지날 때마다 강의 내용을 평가해 부족한 점을 채워서 학생들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왓, "사이버 강의 불변함은 우리 고집일세(!)"

보이지 않는 선



○...새로 도로선을 칠한 것에 대한 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포인트를 밟고 다녀 더러워진 모습.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왓, "새 공사 알람은 자유방임주의(!)"

MT의 참의미

○... 요즘 일부 대학의 MT에서는 서로 간의 힘자랑이 지나치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광주의 한 대학 학과MT에서 선배들이 신입생을 구타해 결국 숨지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Membership Training이라는 MT의 본래 의미를 살려 건전한 MT 문화를 만들고 선·후배간의 우애를 다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왓, "MT의 본 뜻은 Member's Trouble(!)"

동국인 학마당 대축제

건학 100주년을 맞아 일류 동국으로의 기반을 구축하고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20만 동문 대화합의 한마당이 열립니다. 서울 캠퍼스 전역 및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이번 "동국인 한마당 대축제"는 동국대와 인연이 있는 각계 각층의 동문 및 그 가족, 재학생 및 교직원들이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동국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06년 5월 13일(토) 오후 3시부터
2. 장소 : 서울캠퍼스 전역 및 대운동장
3. 참가대상
가. 우리대학 출신 동문 및 가족
나. 전·현직 교직원 및 학생과 그 가족
4. 참가방법
가. 학과 또는 동아리, 향우회, 학술단체 등 각종 소모임별로 참여 적극 권장
나. 참여 모임명 및 참가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시면 당일 행사 시 모임별 부스 및 음료 지원
5. 기타 참가방법 및 행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초 오픈 되는 <http://event.dongguk.edu>를 참조바랍니다.
6. 문의처 : 건학100주년기념사업팀(Tel.02-2260-3122)

2007년도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 2학년(00명) 남학생
2. 지원자격 : 관원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의 남자('89. 2. 28 ~ '81. 3. 1일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3. 13 ~ 4. 25
4.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지원서 / 수능성적 증명서(원본) 각 1부	· 컬러사진(4 x 5cm) 5매
· 대학 1학년 확인용 성적증명서 1부	·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매
· 신원진술서 A양식 3부	· 가산점 증명서류 1부
· 효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각 4부	

5. 선발 방법 / 일정

구 분	2007년도 학군사관
지원서 교부 / 접수	2006. 3. 13 ~ 4. 25
체력검정 / 인성검사	2006. 4. 26 ~ 5. 10
신체검사 / 면접평가	2006. 5. 11 ~ 5. 24
신 원 조 회	2006. 6. 19 ~ 8. 25
최종합격자 발표	2006. 9. 1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06. 9. 1

7. 특 전

- 장교의 신분으로 전공분야의 실무를 터득할 수 있다
- 재학기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군사훈련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 전역 후에도 일반 입대자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취업이 보장된다
- 장교 기준에 준하는 급여 및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가지원시 국내의 민간대학 위탁교육, 미국 등 우방국 군사교육등의 교육혜택이 주어진다

8.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tel 02 - 2260 - 8537)

2005 하반기 군 장학생 모집

1. 모집인원 : 2학년(00명) 남학생
2. 지원자격 : 입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의 남자('89. 7. 31 ~ '81. 8. 1일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3. 13 ~ 4. 25
4.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지원서(사진첨부 / 서약서 1부)	· 칼라사진 5매(4x5, 탈모 상반신)
· 수능성적 증명서(원본) 1부	· 재정 보충금 관계서류 : 각 1부
·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신원진술서 A양식 3부
· 대학 2학년은 확인용 성적증명서 1부	· 효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3부
· 부부연장지원서 / 주민등록 등본 1부	· 가산점 증명서류 1부

5. 선발 방법 / 일정

구 분	2007년도 학군사관
지원서 교부 / 접수	2006. 3. 13 ~ 4. 25
체력검정 / 인성검사	2006. 4. 26 ~ 5. 10
신체검사 / 면접평가	2006. 5. 11 ~ 5. 24
신 원 조 회	2006. 6. 19 ~ 8. 25
최종합격자 발표	2006. 9. 1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06. 9. 1

7. 특 전

- 학군 후보생 선발시 우대 (지원서 "가"점 부여)
- 대학 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수확보조비 지급(연2회 등록금 실비 전액 지급)
- 입관 / 입대시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 보직 활용
- 국내외 민간대학원 석·박사 취학 기회 부여(장기 복수시)
- 우방국의 선진 군사교육을 받을수 있어 고급 지휘관으로 성장할수 있음
- 기혼자 군속소 지원
- 전국 유명호텔 및 콘도 이용 : 휴가, 출장시도 이용 가능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대기업체 채용 우대)

8.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tel 02 - 2260 - 8537)

700차 수요 시위를 바라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 방안에 대해

지난 3월 15일 수요집회가 700회를 맞았다. 92년 1월 시작한 피해자들의 절규가 15년이나 계속 되었다. 기네스 기록을 계속 갱신해 가고 있는 지 오래다. 지난 15년 동안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 과연 이들에게 언제 일본 정부의 사죄 및 배상이라는 정의가 찾아 올 것인가.



논단

최 봉 태 변호사

전 일제강점하경제동원진상규명위 사무국장

피해자들은 그 동안 일본 법정과 미국 법정에서 정의를 찾기 위해 법적 소송을 하였지만 일본 법정에서는 기각 판결을, 미국 법정에서는 주권면책이론에 의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법적 정의가 회복되어야 함에도 정의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를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우선 짚어 보고,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5년 넘게 계속된 시위

우선 피해자들은 수요 시위뿐만이 아니라 일본 및 미국에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법적 투쟁을 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재판은 주로 국제법을 기초로 한 청구는 개인이 국제법상 권리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본 국내 법에 의한 청구는 당시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가무담책 논리, 민법상의 시효나 제척기간 등의

이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그 결과 일본에서는 입법을 통한 해결밖에 없다는 생각에 현재 법률안이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에서의 재판도 일본정부가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국인 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본격적인 심리도 이루어 지지 않은 채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일본에서 원고들이 패소를 하게 된 논리에 대하여 보면 최근의 국제법 이론이나 국제 인도법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구제되어야 하며, 1907년 헤이그 육전 조약이나,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이론 등을 통해 충분히 법적으로도 원고들이 구제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유력해 지고 있고, 일부 재판에서는 일본 국내법상의 그 동안의 법적 장애물들이 하나씩 배척되어 가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일본 법정에서

관리를 주장하는 데 장애물로 논란이 된 것으로 소위 한일청구권협정이 있었다. 즉 일본 재판에서는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을 들어 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도 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님은 2005년 8월 16일 청구권 협정 전면 공개에 즈음한 한국 정부의 입장 표명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국제법상 피해 구제 돼야

사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미 법적으로 일본 정부에 명확한 책임이 있음이 국제 사회에서 널리 인정이 되고 있고, 2000년 동경에서 열린 여성 진법정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제 기관들도 거듭 일본 정부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하여 왔다. 그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이 1996년 유엔 인권 위원회

가 채택한 '쿠와라스와미 보고서'이다. 그 권고 부분을 보면 국가 차원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소 제도가 국제법 위반임을 승인하고 그 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수락하고, 배상하도록 명백히 권고를 하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유엔 기구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상설 중재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구하는 시도를 해야 하며,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이 피해자 문제에 대한 배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청구할 수가 있다고 명언하였다.

인권위 권고 실현되도록 노력

그래서 현재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유엔 인권 위원회의 권고가 실제 실현되도록 우리 정부나 민간 단체가 합심하여 노력을 하는 것이며, 일본이 이를 거부할 때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일본측에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일본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생각된다.

끝으로 북한에도 같은 피해자들에게서 아직 살아 계신다. 남북의 힘을 합쳐 일본 정부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공조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사설

서울대학교와의 학술 교류 협정 체결에 즈음하여

교무처가 올해 들어 경희대, 부산대 등 국내 8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2월 23일이었다. 그리고 오늘은 서울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한다.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 서울대학교는 올해로 60주년을 맞았고 동국대학교는 100주년을 맞이했다. 또한 한 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이며 다른 한 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사립대학이다. 각자가 의미 있는 해를 맞고 있고, 한국 교육계의 주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학교로서는 발전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국립 서울대학교의 우수하고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서울대학교로서도 좋은 점이 많을 터이다. 앞으로 고품격의 품성 높은 불교문화콘텐츠와 인문학적인 인프라를 제도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동국대학교의 독특한 학문적 전통과 역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협약 자체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요컨대 양교가 상호보완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게 이번 협정의 주요한 의의라고 말할 수 있다.

양교 교류의 핵심은 무어니 해도 학점 교류이다. 교류는 활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양교의 많은 강사진이 적절한 규모로 상호 개방되는 게 중요하다. 학생들도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며, 교수들은 이제 더 큰 교육시장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재학생인 김동국 군은 경영학개론 강의를 서울대학교의 이경영 교수에게서 듣고 학점을 취득한다. 이경영 교수의 강의가 국내 최고라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 재학중인 박서울 양의 경우는 평소 심도 있는 불교철학 강의를 아쉽다. 그러나 이제는 불교학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동국대학교에 가서 적절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이런 상상은 당장 이번 여름학기부터 현실로 다가온다. 양교의 학생들은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원하는 강좌, 배우고 싶은 교수에 대한 정보를 살피기 찾아다니는 것이다. 학교의 울타리가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일이 점차 가능해진다. 대학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실력과 열정만이 상아탑을 지켜줄 것이다.

동국만평

이주현 niitake@dongguk.edu



대학내 '신입생 군기 잡기' 빛과 그림자

학과 결속 효과 인정해야 ... 폭력적 비민주적 신입생 교육 철폐돼야

지난 23일 광주 모 대학 건축토목학과와 신입생 환영회 겸 이뤄진 MT 도중, 2학년 선배 2명이 1학년 신입생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했다. 이 학생은 결국 다음날 숨지고 말았다. 고된 입시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얻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삶의 자유'를 잃은 셈이다. 2학년 선배들이 이 신입생을 폭행한 이유는 "군기가 빠져 꾸물댄다"는 것이었다.

'군기(軍紀)'는 한마디로 '군대의 기강'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군대에서도 구타 등 가혹행위에 있어서 엄중한 제재를 가해 비폭력적인 군기를 잡아가는 실정이다. 그런데 대학이라는 학문의 상아탑에서 '군기를 잡기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그로 인해 인명을 잃은 것이다. 이 시점에서

'군기'라는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군기'를 잡기 위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교육하는 일은 비단 남의 일만이 아니다.

우리학교 경향행정학과와, 엄격한 선·후배 관계와 고된 운동훈련으로 학과에 적응하지 못해 학과 학생들에게 내리치는 '기수'를 부여받기를 포기한 신입생이 올해 이미 10명 이상이다. 입학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신입생이 학교에 전과를 알아본 일도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교 여기저기에서 큰 소리로 학과와 기수, 이름을 대며 인사하는 연극학과 학생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천동준(광고홍보4) 군은 "학과

의 특성이라는 점에서 이해는 하지만, 그 장면을 보는 타학과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런 '군기' 잡는 활동 후 오히려 학과 학생들 사이의 결속이 더욱 강해진다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체육교육학과와 같은 피해자들에게서도 3주간은 신입생 교육기간이라고 한다. 이때 배우게 되는 '예의'는 위계질서라기보다 선·후배의 존재감과 각각의 역할이다. 셋째 주에 이뤄지는 신입생 대면식에서 신입생들과 선배들은 남산을 함께 뛰며 우애를 다진다고 한다. "선배가 되고, 졸업을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바로 이 신입생 교육 때"라고 학생들은 말한다.

이와 관련해 유송근 체육교육학과 학생

회장은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를 보아도, 우리 학과만큼 선·후배간, 동기간 서로를 잘 이해하는 학과는 없을 것"이라며 학과에 대한 자긍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물론 학과의 특성을 살리고, 그에 따라 학생들 사이의 결속을 다지는 일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명사고 등 폭력이 자행되거나, 학생이 학과에서 낙오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인습(因習)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군사문화 대신에 학풍의 수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봉사활동 안내

◆ 사회봉사 특전

- 취업·진학을 위한 인증서 발급 (DCEP 인증서 발급시 사회봉사36시간 필요)
- 교내 우수장학 선발시 가산점 부여
- 해외봉사, 복미주 해외 연수, 해외탐방 등 각종 행사 선발시 가산점으로 인정됨

< 사회봉사 시간 인정 기준표 >

Table with 5 columns: 봉사 종류, 1회당 인정 시간, 최대인정 횟수, 획득 방법, 비고. Rows include 참가팀 봉사단, 해외봉사, 헌혈봉사, 정기 기증 봉사, 개별봉사.

* 모든 확인서는 원본 확인 후 반환해 드립니다.

학 생 처

봄학기 어학 특강 (1차)

< 강의기간: 2006. 3. 20(월) ~ 4. 21(금) >

TOEIC & 중국어 강좌

Table showing TOEIC and Chinese course details including levels (초급, 고급), HSK 6급 완성, and TOEIC scores.

■ 강좌 안내

- 교내집중 토익 특강 (TTC)
○ 중국어 고급
○ 제2차 중국어 대입정
○ DU ABC Cyber TOEIC
○ HSK 6급 완성

수준별 원어민 영어 강좌

Table showing English course levels (초급, 중급, 고급) and details like conversation topics and materials.

■ 강좌 안내

- 원어민 영어회화
○ Debate Class(토론 집중반)
○ Interview & Presentation Skills
○ 등록 안내

동국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2005년 동국인의 시간 활용

강의 듣고 복습 · 리포트 · 영어공부에 하루가 후딱

평균수면 6시간, 학과공부 4시간은 기본 ...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문화생활은 힘들어

2005년 우리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시간을 활용했을까. 작년 2학기 통계학과와 표본조사실습 수업시간에 진행된 '2005년 동국대학교 재학생 시간활용조사' 결과에 의하면 하루 24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동국인의 하루'를 가상시나리오로 엮어 보고 주요 통계 결과를 간추려 보았다. 편집자

오전 6시 - 기상

오늘도 동국인은 9시 수업을 듣기 위해 아침 7시 40분에 허겁지겁 집을 나선다. 부지런히 역으로 가서 전철을 타니 전철 안은 출근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하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겨우 손잡이를 잡았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던 동국인은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내리자 그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책을 꺼내든다. 전철 안에서 보내는 1시간 가량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책을 꺼냈지만 몇 글자 읽지도 않았는데 밀려오는 잠을 주체할 수 없다.

잠을 자고 일어나니 어느덧 동대입구역에 도착했다. 걸음을 재촉해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학생들 사이를 지나 강의가 있는 문화관에 도착. 강의실에 들어가 수업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지만 밤

을 새워 쓴 리포트 작업으로 다시금 밀려오는 졸음이 동국인을 고통스럽게 한다. 잠과의 싸움을 하고 나니 어느덧 12시가 됐다.

낮 12시 - 식탁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가고 있는 길에 06학년 후배들이 동국인을 보고는 우르르 몰려온다.

'에휴, 오늘도 밥값으로 5인분 가격 쓰겠군'

이달 초에 받은 30만원 용돈은 없어진 지 오래. 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교재 값이라는 핑계를 대고 조금씩 돈을 받으려 하루하루를 보낸 지 벌써 일주일째다. 하지만 귀여운 새내기 후배들에게 쓰는 돈인 만큼 그리 아깝지 않은 않다. 후배들과 학교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고, 도서관으로 향한다.

오후 2시 - 도서관

도서관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니 토익과 자격

증을 공부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마음을 잡고 집중을 하려는데 배는 부르고 날씨는 좋은지라 서서히 춘곤증이 찾아온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잠을 깨고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토익학원에 가기 위해 학교를 나와 전철을 탄다. 단 어장을 꺼내보지만 생각보다 잘 오르지 않는 토익 점수 때문에 토익 학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번 달 토익시험에 나올 예상문제들을 풀어나간다. 학원을 나오니 어느덧 어두컴컴한 밤이 됐고,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 오전에 읽지 못했던 책을 다시 꺼내 읽으면서 집으로 향한다.

오후 9시 반 - 집 도착

집에 오는 길에 가게들을 지나치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보려 하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컴퓨터를 켜고 리포트를 마무리한다. 이번엔 장학금을 꼭 타리라 다짐하며 강의 시간에 필기한 내용들을 살펴다보니 시계바늘은 12시를 가리킨다. 오늘 소모한 체력을 충전하기 위해서라도 6시간장도의 잠은 필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동국인은 잠자리에 든다.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통계로 보는 동대생의 2005년

■ 재학생 남녀 현황

	편제정원	남학생	여학생	소계
1학기	11,752	6,633	5,082	11,715
2학기	11,752	6,269	4,849	11,118

* 기준일: 1학기 - 4월 1일, 2학기 - 10월 1일
* 기준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재학생 변동사항 보고 자료
* 편제정원: 1, 2, 3, 4학년 정원 내 입학정원 총 인원

■ 재학생, 휴학생, 제적생 현황

	편제정원	재학생	휴학생	휴학신청학생	제적생
1학기	11,752	11,715	5,911	2,387	285
2학기	11,752	11,118	5,906	2,133	182

* 휴학생: 재학생 중 휴학생 총인원(군휴학생 포함)
* 제적생: 미등록 및 미복학생, 자퇴생, 사망, 성적 및 성행불량생

■ 휴학생(일반휴학) 남녀 현황(군휴학 제외)

	편제정원	남학생	여학생	소계
1학기	11,752	1,694	1,070	2,764
2학기	11,752	1,612	1,072	2,684

■ 장학금 수혜 현황 (금액:천원)

구분	1학기				2학기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교내 장학	신입생장학	520	705,561	15	18	233	340,656	6	8
	성적우수	1,275	1,469,577	38	38	1,690	1,931,674	47	48
	총장장학	711	301,394	21	8	739	293,992	20	7
	불교장학	77	148,080	2	4	69	131,248	2	3
	복지장학	483	641,851	14	17	444	577,144	12	14
	세계화장학	132	198,416	4	5	208	304,972	6	8
교외 장학	특기장학	178	381,003	5	10	222	435,394	6	11
	소계	3,376	3,845,882	100	100	3,605	4,015,080	100	100
	동문회	121	96,940	24	11	214	242,440	40	27
	장학재단	218	533,454	44	60	182	442,345	34	49
	정부및지방자치단체	160	260,871	32	29	140	226,409	26	25
	소계	499	891,265	100	100	536	911,194	100	100
합계	3,875	4,737,147			4,141	4,926,274			

■ 도서관 출입/대출 통계

구분(월)	출입현황			비고
	중앙도서관	중양도서관	만해관	
3	36,884	95,006	70,681	3월말 출입계 이트 가동 (신입생 학생 증 미발급)
4	35,862	165,710	216,309	
5	37,369	136,358	192,956	
6	29,346	119,661	203,454	
7	16,824	43,157	115,618	
8	14,168	39,327	114,704	
9	35,192	141,954	151,451	
10	35,181	159,344	231,175	
11	40,725	145,453	155,022	
12	28,474	114,395	174,408	
1	15,315	38,565	99,179	
2	11,416	31,370	92,927	
합계	336,756	1,230,300	1,817,884	3,048,184

■ 학생상담센터 월별 심리검사자 현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MBTI	77	25	85	40	18	18	263
MMPI				83			83
적성탐색				57			57
직업흥미	5	9	15	14	4	-	47
교원 및 교직원 자녀 성장프로그램						6	6
개인상담	6	7	6	9	3	4	35
집단상담				14			14
집단 워크샵	119	376	32	21			548
계							1,053

* 2005년 3월~2005년 8월까지의 통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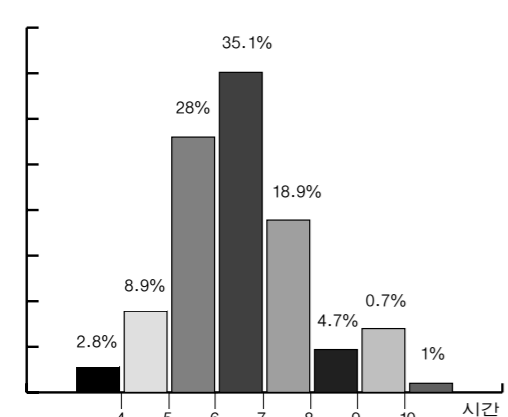
■ 보건소 이용 현황

구분	질병내용	사용자
일반진료	내과	1,762
	외과	3,636
	이비인후과	4,199
	안과	101
	신경정신과	9
신체검사	치과	3
	피부과	56
	기타	294
	소계	10,060
	총부 X-RAY	1,961
예방접종	혈액검사	1,961
	소변검사	1,961
	간기능검사	2,145
기타	소계	8,028
	독감	389
	소계	389
기타	구급약품낭지급	46
	건강상담	170
	소계	216
계		18,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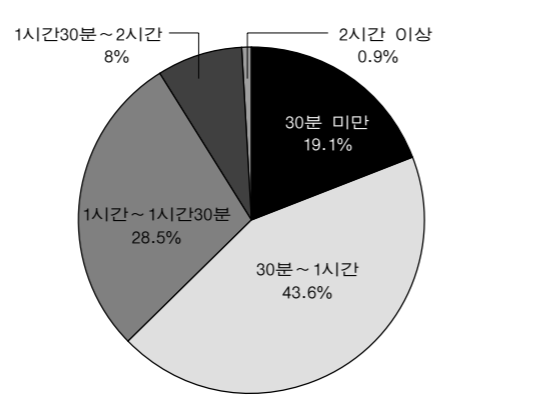
■ 대학별 사회봉사 활동 현황 (단위:명)

대학/연도	2005
불교대학	26
문과대학	238
이과대학	236
법과대학	73
사회과학대학	387
경영대학	415
생명자원과학대학	204
공과대학	407
정보산업대학	393
사범대학	367
예술대학	49
합계	2,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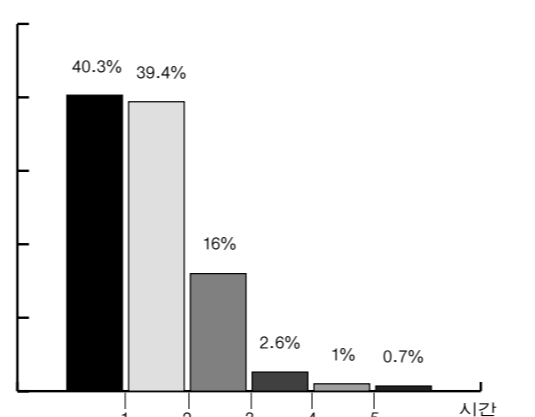
■ 수면시간 (낮잠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야간 수면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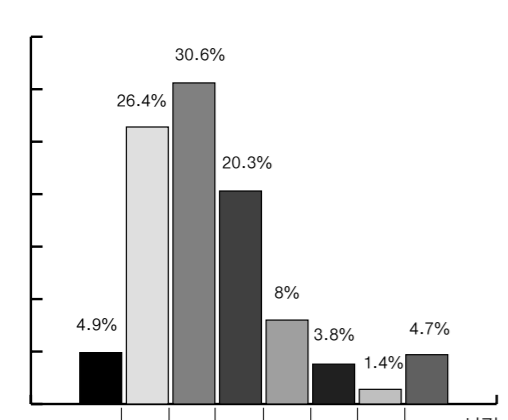
■ 통학시간(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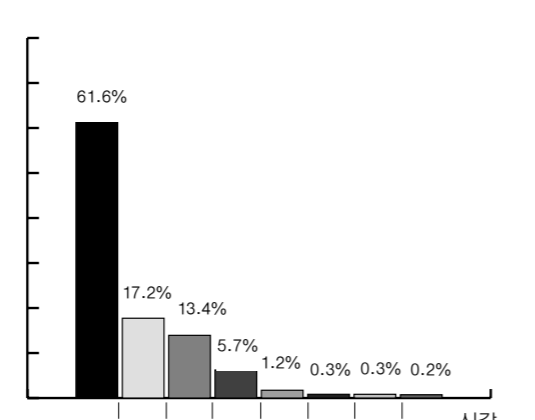
■ 복습시간(리포트 작성 시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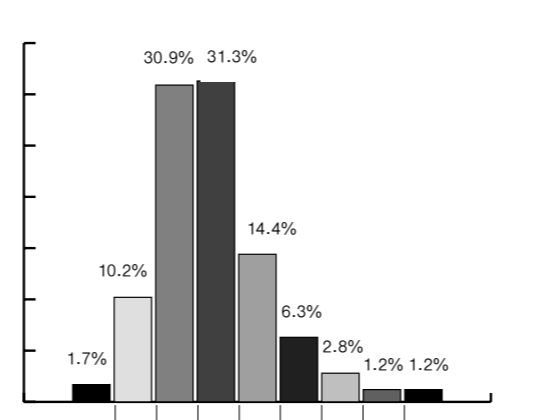
■ 리포트 작성 시간(출퇴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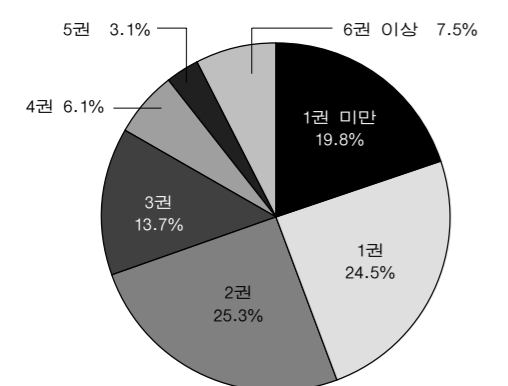
■ TOEIC 공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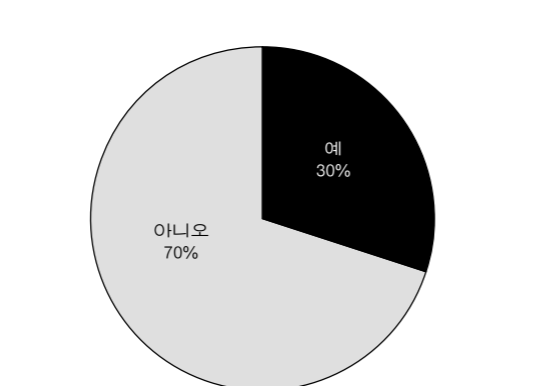
■ 한달 평균 용돈(하숙비, 월세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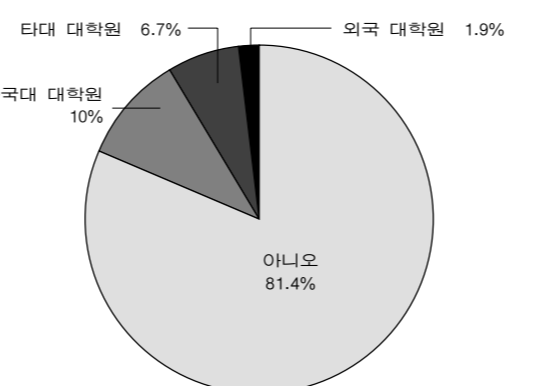
■ 한달 평균 독서량(교재, 참고서적 제외)



■ 현재 아르바이트 여부



■ 대학원 진학여부(4학년 학생)



2005학년도 2학기 동국대학교 재학생 시간활용조사에 관하여

2005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12,251명의 동국대학교 재학생들 중 576명(4.7%)을 대상으로 실시된 시간활용조사는 '표본조사설계 및 실습' 수업의 일환으로 담당교수의 지도 하에서 수강생들(통계학과 3학년 홍성준 외 21명)이 함께 진행한 통계조사이다. '표본조사설계 및 실습' 수업은 조사기획으로부터 표본추출, 설문지 설계, 조사원 교육, 조사 실시, 최종보고서 작성 등의 표본조사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으로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수업이 병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내 행정용 자료의 획득 및 연구목적 등으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조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번 조사는 재학생들이 학교생활 및 기타생활을 위해 구체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본인들의 시간활용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두 번째,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의 사용이다. 흔히 조사원들이 특정 장소에 있는 응답자들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조사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정확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보다는 통계적 이론에 근거한 랜덤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응답자들을 뽑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모든 응답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 조사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 실시이다. 모든 조사원들이 수개월에 걸쳐 표본조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본 조사를 위한 직접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여 양질의 조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번째, 자료수집 방법의 다양성이다.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지만 응답자들의 개인생활환경이 크게 차이가 있어 면접조사 외에 전화조사(일반전화조사, 핸드폰조사)도 같이 실시함으로써 조사의 응답률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동국대학교 전체 재학생들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일부 학생들을 표본으로 뽑아 조사하였으므로 조사결과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백분율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약 4%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김선웅
이과대학 통계학과 교수

우리는 동국가족

즐거웠던 학창시절 형부들과 함께 해 더욱



이충덕 동문

“이 지구상 어느 한 곳에 바늘 하나를 딱 꽂고 저 하늘 꼭대기에서 떨어뜨린 밑저 하나를 나폴 나폴 떨어뜨려서 바늘 위에 딱 꽂힐 확률, 바로 그 계산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확률을 인연이라고 부른다.”

영화 ‘변지점프를 하다’의 이 명대사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한 것이라고 흔히 얘기한다. 그러한 이충덕(농학00졸) 동문과 윤재웅(국문85졸) 동문, 정현주(농학88졸) 동문의 남다른 인연은 가족의 인연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충덕 동문은 윤 동문과 정 동문이 각각 둘째 언니, 넷째 언니와 결혼하면서 두 형부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는 시아버지까지 우리학교 출신이어서 가족 중 무려 네 명이나 동국의 일원이 된 진정한 ‘동국가족’으로 거듭났다.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동문은 당시 둘째 언니와 친구사이이자 한국문화연구소에 있던 윤재웅 동문과 대학 진학에 대해 상담하면서 우리학교와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4학년에 재학 중일 무렵에는 이 동문이 당시 같은 과 교수였던 정현주 동문을 넷째 언니에게 소개시켜 주는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 동문은 재학 당시 두 형부가 함께 했기 때문에 추억담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마련이라고 한다. 윤 동문이 약 일 년 동안 강의실 앞까지 이 동문의 통학을 도와서 늘 친구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나중에 대학원 진학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에도 든든한 조언자의



이충덕 동문(오른쪽 세번째) 어머니 회갑잔치에서 윤재웅 동문(맨 오른쪽)과 정현주 동문(왼쪽 뒷줄 세번째)이 함께한 가족사진.

역할을 해주었다. 그런가하면 넷째 언니를 통한 정 동문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두고 친구들이 둘 사이의 관계를 오해한 웃지 못할 사연도 있었다고 한다.

그밖에도 우체국 앞 흠날리던 벚꽃과 친구들에게 학보 보내던 일 등이 떠오르는데 이 동문은 평소 형제들이 모이면 옛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운다고 한다.

“졸업 후 잊고 있었던 대학생활을 되새겨 본 계기가 되었다”며 “몸은 떠나있지만 계속해서 소식을 접하면서 학교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이 동문. 이렇게 가족의 이야기가 기사화 되고 나니까 비로소 인연이라는 것을 한층 더 실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덧붙여 동국인들에게 “학교의 발전이 곧 개인의 자산임을 깨닫고 학교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이 동문에게서 동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애정 어린 눈으로 학교를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동국인’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동국 100주년 서포터즈가 책임진다!

학교와 학생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 ... 통역·홍보·디카 분야에서 활동

건학 100주년을 맞아 학생들이 나선다. 건학 100주년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에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개진하기 위해 ‘동국백년 서포터즈’가 모집된 것이다.

건학100주년 기념사업본부가 지난 2일부터 9일간 모집한 ‘동국백년 서포터즈’는 △통역=15명 △홍보=15명 △디카=5명을 각각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자들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향후 교육 참가여부 및 태도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확정하기로 하고 우선 80명을 1차 선발했다.

1차 선발된 ‘동국백년 서포터즈’ 후보자들은 다음달 6일에 예정된 발대식에서 서포터즈 선서를 하고 다음달 7일부터 이틀간 워크숍을 통해 △팀웍 형성을 위한 공동체 훈련 △서포터즈로서의 기본매너 교육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 교육 등을 받을 예정이다.

홍보 서포터즈들은 △홍보모델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활동으로 100주년 소식 운영 △설문 조사 활동 등을 할 예정이고, 통역 서포터즈는 건학 100주년 기념식 및 국제 학술대회에서 해외귀빈 통역 및 의견을 담당한다. 또한 디카 서포터즈는 평상시 꾸준히 사진을 찍어 건학100주년 기념사업본부에 제출해 사진이 학교 홍보를 위해 쓰일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동국백년 서포터즈’는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 부여되는 여러 과제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홍보 분야에 지원한 안은상(신방2) 군은 “작년 고려대 100주년 행사 때, 고려대 학생들의 자긍심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우리도 이번 건학 100주년을 맞아 학생으로서 이를 직접 홍보하고 우리학교의 위상

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통역 분야에 지원한 채하나(산업공학4) 양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보고 학교생활에서의 추억을 만들고자 지원하게 됐다”며 “건학 100주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해 아쉬웠는데, 우리들의 활발한 활동이 긍정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국백년 서포터즈’를 담당하는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본부의 박정순 과장은 “서포터즈는 학생들이 주체가 돼 학교를 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들이 이번 건학 100주년 행사들만 홍보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 2기, 3기를 모집해 활동이 계속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3일 예비소집에 참가한 학생들의 모습.

한 “이를 위해서는 이번 서포터즈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학교에서는 올해 건학 100주년을 맞아 여러 기념행사가 열린다. ‘동국백년 서포터즈’는 이런 행사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며 우리학교의 밝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건학 100주년을 지지하는 주체로서 학교와 학생들을 이어줄 ‘동국백년 서포터즈’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이야기 동국 100년

불교계 분열로 혼란

③ 불교사범학교 시대



불교사범학교의 교전(校典).

1906년에 설립된 명진학교는 신학문 위주의 교육에 치우쳤다는 불교계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원만히 운영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불교계는 시국을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다. 이 과정에서 명진학교 설립의 주체였던 불교연구회는 1908년 3월에 해체되고, 다수의 지지를 얻은 중도파를 중심으로 한국불교 자치기관인 원종(圓宗) 종무원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권도 불교연구회에서 원종 종무원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일제 통감부는 1908년 8월 26일 ‘사립학교령’을 공포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할 때 학부대신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폐쇄도 학부대신이 명할 수 있게 하였다. 사립학교의 존재문제가 통감부의 손으로 넘어가자 불교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종무원은 1909년 2월 1일 명진학교의 수업 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12월 10일에는 부설교육기관으로 명진총량강습소를 개설하여 나름대로 활로를 모색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명진학교 강사들을 중심으로 전문학교 승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는 각 사찰에 한 개의 보통학교와 중학교를 설치하고, 중앙에 전문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한용운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다. 종무원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명진학교를 고등전문학교 수준의 학교로 승격시켜줄 것을 학부에 청원하였다. 그러나 통감부는 전문학교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립학교령을 적용하여 ‘불교사범학교’로 인가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명진학교는 창립 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불교사범학교가 새로이 출범하였다.

불교사범학교의 교과과정은 명진학교 시절과 별반 다를 바 없었고, 학교 건물 역시 원흥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당시 학교생활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면으로 만든 짧은 소매의 검은 색 법의와 승모를 착용하고, 미투리를 신었다. 또 명진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원흥사 내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하지만 불교사범학교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원종이 일본불교와 연합을 피하자 이에 반발한 승려들이 1911년 1월 임제종 종무원을 설립하면서 학교도 혼란에 휩싸인 것이다. 일본불교와의 연합 문제를 놓고 불교계가 양분되자 불교사범학교의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소속 사찰로 돌아가 버렸다. 별다른 청산절차도 없이 학교 운영이 흐지부지되고 만 것이다.

이용범
소설가·동국 100년사 대표 집필자

열린글터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민방, 4대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유망한 문체는 소용의 교리를 드립니다. 많은 글이 올립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동대신문 dgupress@naver.com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새내기들에게 바라는 말

웃음을 머미게 하던 추위도 어느새 한결 누그러지고, 따뜻한 기운이 살아나는 봄이 또 찾아왔다. 이쯤 되면 신입생들은 들뜬 마음으로 캠퍼스 여기저기를 활기차게 돌아다니며 대학생활의 자유로움을 한껏 만끽한다. 2학년인 나는 그런 신입생들의 산뜻한 모습들이 부러울 뿐이다. 그렇게 새학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갑자기 때 아닌 회의감에 빠지고 있다. 마냥 설레는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신입생을 보고 있노라니 작년의 내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성인이 되었다는 느낌에 이전에는 맞출 수 없던 경험도 많이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고 또 그 안

에서 다른 인생을 찾은 듯한 짜릿한 기분. 사람들과 어울려 술도 밤새 마시고, 강의실 대신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고, 학점보다는 이성친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는 생활들을 보냈던 날들. 입학하기 전, 큰 포부를 가지고 열정을 담아 꼭 이뤄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한 내 인생의 목표는 뒤로한 채 그저 대학에 왔으니 한고비 넘겼다는 안도감에 방랑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 지난 날 내 모습들을 말이다. 물론 사회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할 많은 추억을 쌓고 고학년이 되어서는 감히 도전하지 못할 일들을 신입생 때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도약하려는 노력이 일상생활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주위에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도 부단히 노력중인 많은 친구들을 보며 다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년 깨달으면서도 당장 눈앞의 학교생활에만 열중할 나머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이번 새내기 학생들은 그런 점을 하루빨리 깨달아 생활에 짙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한 레일위에 달리고 있을 줄 아는 진정한 멋진 모습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정인영(사과대 광고홍보2)

색깔 옷을 입는 코끼리

학교 정상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코끼리상 만큼 내게는 묘한 충동을 불러오는 것이 없다. 그 등에 타올랐다가 불상 앞에서 천배를 했다느니, 퇴학을 당했다느니 하는 괴괴한 소문이 코끼리 주위에 보이지 않는 철조망을 쳐놓고 있다. 코끼리를 우습게 대해선 안 된다는 학칙이 정말로 있다면 분명 그 코끼리가 불교정신의 구원을 표방하는 학교의 상징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떠한 사소한 사물이든 사람들이 의미를 그 사물에 고정하고 어떤 큰 사고의 상징이

로 여길 때 그것들은 무시할 수 없이 신성한 것이 되어버린다. 코끼리 뒤에 교칙이 있듯, 신성한 상징의 배경에는 규율이 있다. 규율은 손쉽게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을 역설하는 상징물을 끌어오고 상징체계를 감히 범했을 때는 사회(학교)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인물로 취급한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이 제대로 된 규율이라면 규율은 거둬내야 하는 속어에 있어야 한다. 그 전의 규율은 새로운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에

얼마든지 자리를 내주어야 하겠다. 코끼리가 다 커서까지 새끼 코끼리 때의 철장을 고집하는 사육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다윈의 사고가 곳곳에서 펼쳐지는 이 시대에 규율은 금기로 갑옷을 만들어 버리고 서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움직임이라는 형태를 띠어야 한다. 동국 100년을 맞아 코끼리는 거둬내야 할 필요가 있다. 필요에 따라서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표출되는 장으로서 색깔 옷을 입지 말란 법이 없다. 이제 물어볼 때도 되었다. 지금, 코끼리의 등에 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최두호(예술대 문창2)

편의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할 때

새학기가 시작되어 갑자기 엄청난 학생들이 중앙도서관(중도)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중도를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열광 인색기도 한번쯤 이용해 봤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자면 우리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책을 찾은 뒤 열람을 위해 신청서를 인쇄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열람용 인쇄기이다. 많은 학생들이 아무런 저항감이나 문제의식 없이 그저 필요할 때나 아닐 때나 열람 신청서를 인쇄한다. 물론 그 물건은 그렇게 하라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

들어 놓았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그 작달막한 기계가 조금씩 우리의 미래를 갉아 먹고 있는 것이다. 다들 알고는 있으나라 생각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먼저 질 좋은 종이를 '남비'하고 있다. 만져보면 알겠지만 대중사서 끼워 넣은 종이 가 아니라 말이다. 또한 초등생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종이의 남비는 결국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자르면 정화가 되지 않고 등등, 더 애길하면 무엇하랴. 그리고 사용 후엔 그저 아무 데나 버려놓는다. 쓴 사람

이 제대로 버리면 간단한 것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게 만든다. 힘들게 벌어서 낸 학비가 겨우 '그까짓거'에서 새나간다. 학교는 남비를 위해 등목금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도서관 일꾼들이 어떤지를 잘라 컴퓨터 앞에 비치해둔다. 그것을 본인의 손을 이용해 적으라는 얘기다.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우리의 환경도 살리고, 여러 사람의 수고도 줄이고, 남비를 막아 절약도 하고, 재활용까지 할 수 있으니 일석사조가 아니겠는가. 작은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손가락 까딱하기 싫은 이는 그냥 손을 거뒀다.
이선(buddhahood@hanmail.net)

인격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할 때



학생논단

이민준
법과대 법3

고위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여기서 성추행 사건으로 형사 고발당한 최연희 의원을 필두로 3·1절 골프파동으로 사퇴한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 최근에는 유력한 대선후보로 손꼽히는 이명박 서울시장까지 가세하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저지른 실정법 위반행위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과오 이후, 이들이 보인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있다. 최연희 의원은 강제추행죄를 범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20여일 간 잠적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잘못을 했

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옳은 행동이다. 범인(凡人)도 그러할 진대, 일국의 국회의원이 라는 사람이 반성이나 사과 없이, 비난 여론이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침묵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여태껏 쌓아올린 명예와 신뢰를 모조리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전직 부장검사답게 법망의 빈틈을 노려 명정 상태(醜狀狀態)를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할 듯 보이나, 구차하게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 아름답게 퇴장하였으면 한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군부대 오발사고 조문일, 식목일 강원도 낙산사 대형 화재, 집중호우로 남부지방이 물에 잠겼을 때 언제나 골프장에 있었다. 공선사후(公先私後)의 자세를 망각한 공직자는 그 사실만으로도 자격 미달이다. 게다가 이번 3·1절 골프는 총리 산하의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 오토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점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비롯 중대한 실정법을 위반하였다. 3·1절 골프사건 이전의 사안들은 총리직 사퇴로 소극적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었지만, 직 무관련 이해당사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것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특유의 추진력으로 서울시의 살림을 꾸려오던 이명박 서울시장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3년간 테니스를 공짜로 치는가 하면, 그 대가로 서울시 체육시설들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예산을 과다 지원하는 등 특혜 의혹이 불거진 까닭이다.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 명백했던 앞의 두 사안과는 달리, 아직은 의혹에 불과하여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여당의 마타도어(Matador)적 흡집내기일 수도 있겠으나, 수 천만원에 이르는 테니스 비용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것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반증하고 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질수록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지도자의 인격과 경륜에 따라 국가의 발전과 존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관리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덕과 함께 위업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 올바른 뜻과 공명감이 있어야 바른 행정을 펼 수 있다는 다산의 말처럼 뛰어난 능력 이전에 먼저 전인적(全人的)인격을 갖춘 지도자가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독자 사진첩



야외콘서트 ... 두려움 없는 새벽. 피어리스턴의 이름에 걸 맞는 뜨거운 열정으로 언제나 공연에 임하겠습니다. 락 음악을 사랑하는 동국인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피어리스턴

보리소

나한이 주는 가르침

사람의 건물은 대웅전, 명부전처럼 모두 명칭이 다르다. 그런데 '관음전'이나 '산신각'은 명칭만으로도 모셔지는 대상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나한전(羅漢殿)' 또는 '응진전(應眞殿)'처럼 만만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둘 다 명칭은 다르나 부처가 될 수 있을 만큼 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속세에 남아 중생들을 구제 또는 제도한다는 나한(아라한)이라는 분들을 모시는 건물이다. 나한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아주 나이가 많은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행자들의 표상이기도 하면서 또한 신통력이 있다고 믿어왔다. '아라한'이라는 영화에서 배우 류승범 등이 하늘을 난다든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나한의 성격 가운데 하나인 '신통력'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일본 도쿄의 이데미츠(出光)미술관에는 고려시대 나한그림이 한 점 있다. 먹으로 그린 500쪽의 나한도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로 두 다리를 벌리고 양손을 허리춤에 댄 그야말로 위풍당당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먹으로 쓴 글 가운데 '을미(乙未)년, 인병속멸(隣兵速滅)'이란 문구가 특별히 눈에 띈다. 즉 "1235년에 가까이 있는 적을 빨리 물리쳐 달라"는 목적으로 그렸다는 뜻이다. 1235년은 고려의 왕실이 몽골과의 항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경을 버리고 강화도로 천도한 3년 뒤이며, 강 폭 정도는 바다 건너 뻗어 보이는 곳에서 적들은 수시로 무력시위를 하고 전국을 초토화시키고 있을 때이다. 즉 이 그림은 팔만대장경 제작 목적과 마찬가지로 나한의 신통력이라도 빌어 국난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절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전해주는 좋은 예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아직도 마음의 계움을 버리지 못하였다면 나한을 뵈고 108배라도 올려보라.
정우택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불교학과 100년제

동국대학교 건학100년과 불교학과 창설 100주년을 맞아 '불교학과 100년과 한국불교'라는 주제의 기념행사를 열하고자 합니다. 두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100년과 한국불교
- 일시 : 2006년 4월 7일 (금) 14:00-18:30
- 장소 : 동국대학교 문화관 그릴
- 주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 / 불교학과 (서울, 경주) / 대학원 불교학과 / 불교학과 학생회(서울, 경주) / 대학원 불교학과 학생회
- 주관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
- 연락처 : (Tel) 02-2260-3835 (동국대 교수회관 120호 김용표 교수연구실)

불교학과 동문회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부정적 기사 많아 아쉬워 보다 따뜻함을 주는 기사 기대

지난호 동대신문에서 첫눈에 들어오는 기사는 학교 내 여학생 화장실 몰래 카메라 사건이었다. 뉴스에서 여자화장실의 몰래 카메라를 찍어 인터넷에 올린다는 범죄행위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일이 경찰서가 교문 코앞에 있는 학교 내에서도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 독자들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지 않아 학교에 대한 여학생들의 불신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또한 '총 동창회 100주년 준비 미흡'이라는 기사 또한 지난호 동대신문의 이슈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동국 100주년을 맞아 특별히 주관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는 총동창회의 관계자의 발언은 그들의 뒤를 이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총동창회의 준비성에 대한 미흡함을 꼬집는 기사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알기 힘든 사실을 보도 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 동국 100주년을 맞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이미 졸업해 버린 졸업생들이 아닌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했다. 학생들이 학교 개교일을 기념 삼아 스스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지 혹은 공연행사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교일을 단순히 술과 놀이만으로 점철시키려는 계획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호 기사들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문제들, 지금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기사들이 많았다. 우리 주위에서 이슈가 되는 일들이 대체로 부정적이고 그러한 일을 벌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어야 한다는 기사의 목적은 이해하면서도 다음호에서는 보다 마음 따뜻해지는, 우리의 정신적 삶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양질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오나리(경영대 정보관리2)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향
월 (3/27)	쇠고기국밥 (1800)	참치김자짜개 (1800)	된장짜개 (3200)	어묵국 (2300)
	중국식볶음밥 (2000)	리조육 (2000)	부대짜개 (3500)	낙지비빔밥 (2900)
	갈비경단백반 (2000)	불고기비빔밥 (2000)	자반무조림 (3500)	치즈부대짜개 (2900)
화 (3/28)	풀면사리부대짜개 (2000)	손만두국 (2000)	된장짜개 (3200)	미역국백반 (2000)
	함박스테이크 (2500)	제육깡뚝볶음 (2000)	해물전골 (3800)	떡볶이불고기(2900)
	닭갈비 (2000)	잡채덮밥 (2000)	산채비빔밥 (3500)	불닭떡볶음 (2900)
수 (3/29)	설렁탕 (2000)	삼선짜구이순두부짜개 (2000)	된장짜개 (3200)	만두국 (2300)
	간동육 (2000)	쇠고기양송이볶음밥 (2000)	튀김우동 (3500)	치즈김치볶음밥 (2900)
	산채비빔밥&생선고기 (2000)	꾸꾸미이채볶음 (2000)	삼겹살치척볶음 (3500)	버섯육개장 (2900)
목 (3/30)	갈비탕 (2000)	갈비탕 (2000)	된장짜개 (3200)	순두부짜개 (2300)
	제육볶음 (2000)	오삼불고기 (2000)	날치알술밥 (3500)	원향정식 (2900)
	치즈볶음밥 (2000)	궁중떡볶이&떡갈비 (2000)	버섯불고기 (3800)	돈갈비김자짜개 (2900)
금 (3/31)	감자탕 (2000)	닭곰탕 (2000)	된장짜개 (3200)	북어해장국 (2300)
	돈가스 (2500)	돈육뽕콩강정 (2000)	갈비전골 (3800)	돌솥평양비빔밥 (2900)
	떡양념치킨 (2000)	김치볶음밥 (2000)	삼치구이 (3500)	단호박사태찜 (2900)

대학생이 읽어야 할 고전 ②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일심의 발견으로 독자적인 철학 구축

'한마음'의 깨끗한 측면과 때묻은 측면 종합

원효(元曉, 617~686)는 한국의 독창적인 사상가이다. 그는 인도와 중국의 여러 경교(經敎)를 융화하여 '일심의 철학'을 구축했다. 87종 180여권이었던 원효의 저작은 22종 남짓 남아있다. 흠어진 것을 모은 집 일부분까지 치면 몇 종이 더 늘어난다. 때문에 이들 중에서 그의 대표작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다. 원효의 사상적 역사는 일심(一心)-화회(和會)-무애(無礙)의 기호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들 코드는 각기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과 '화엄경소'에 대응된다. 이 세 텍스트는 저마다 일심-화회-무애의 기호를 겹치면서도 각기 일심의 기호로 귀결되고 있다.

'넉넉한 마음'인 일심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입문했다. 그 위에서 독자적인 해석의 꽃이 피어났다. '대승기신론'은 일심(一心)-이문(二門)-삼대(三大)-사신(四信)-오행(五行)-육자법문(六字法門)의 틀로 되어 있다. 여기서 '대승'은 일심이자 중생심이다. '기신'(起信)의 '기'는 이 논서의 글에 의하여 중생의 믿음을 일으킴을 의미한다. '신'(信)은 결단고 고려하기에 진리에 대해 믿을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그래서 이치가 실제로 있음을 믿으며, 뒤아서 얻을 수 있음을 믿으며, 뒤아서 얻을 때에 무궁한 덕이 있음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한량없는 공덕이 있으므로 이 논서에 의해 발심하게 되기에 '기신'이라고 말하고 있다. '론'은 인간이 실천해야 할 이치를 밝힌 글이다.

상에 의하여 경계가 실제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경계상의 세 가지 미세한 마음(三細)이 제8 아뢰야식에 해당된다고 했다. 원효는 자성정경(自性淸淨)의 깨달음의 특징을 내적인 관행(自利)과 외적인 현실참여(利他)로 파악했다. 하여 마음의 근원에 이른 깨달은 이는 깨달은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할 것을 역설했다.

원효는 이 논서의 구도에 입각하여 '한 마음'의 맑고 깨끗한 측면의 설명에 치중하는 중관(中觀)사상과 마음의 물들고 때묻은 측면의 해명에 집중하는 유식(唯識)사상을 종합 지양하여 중도 지혜의 활로를 열어젖혔다. 그는 '중론'과 '십이문론' 등의 사상은 '모든 집착을 두루 깨뜨리며 또한 깨뜨리는 것과 깨뜨림을 당한 것을 다시 인정하지 않아 깨뜨리지만 할 뿐 세우지 못하여 보내기만 하고 두루 하지 않는 논'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유가사지론'과 '십대승론' 등의 사상은 '깊고 얕은 이 둘들을 온통 다 세워서 법문을 판별 하였으며 스스로 세운 법을 모두 버리지 아니하여서 세우기만 할 뿐 깨뜨리지 않고 주기만 할 뿐 빼앗지는



않는 논'이라고 정의했다. 하지만 '대승기신론'은 "세우지 않는 바가 없으면서 스스로 부정하고, 깨뜨리지 않는 바가 없으면서 도리어 인정하는 모든 논서의 조종이며 모든쟁론을 평정시키는 주인"이라고 격찬하였다. 원효는 이 논서의 '한 마음'과 '진여-생멸'문의 구도를 통해 자신의 사상적 구조로 원용하였다. 그의 오도 과정도 '기신론'의 일심 이론의 구조 그대로였다. 그 체계는 논서의 일부만을 주석한 젊은 시절의 '별기'(해동별기)와 달리 만년에 지은

'소'(해동소)에 잘 담겨져 있다. 원효의 '해동소'는 이 논서의 삼대 주석서 중 위찬(僞撰) 설이 있는 해원의 것과 분과(分科)와 연구(言句) 해석에 있어서 원효 것을 그대로 답습한 법장의 것과는 크게 변별된다. '해동'은 여타의 중국 것과 변별되는 원효 주석의 '독자성'에 부여된 별칭이었다. 따라서 그는 '대승기신론소'를 통해 이 논서의 가치를 제일 잘 드러내었고 가장 잘 융화한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다.

고영섭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겨울

정양

이 겨울 눈 내리는 들판은 더 넓어지고 있을 것이다. 빈 들에 사무치는 아우성으로 바람소리는 파랗게 날이 서고 있을 것이다.

목숨이란 어차피 천별인 것을 백성들이 갈수록 천해진다. 콜록거리며 사랑채는 겨울밤이 더 길어질 것이다.

대처로 떠나 잘된 이들도 갈수록 천해져서 떠돌고 이 겨울 고향 강물은 더 깊어지고 있을 것이다.

- 시집 '까마귀' (문학동네, 2002)

눈이 내리면 들판은 더욱 넓어진다. 빈 들에 사무치는 아우성으로 날을 세우는 것이 바람 소리만은 아니다.

감오년 동학 난리 때에 맞아 죽은 할아버지들. 일제의 수탈에 항거하다가 맞아 죽은 아버지들, 6·25 전쟁 때에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가 총질당하여 죽은 삼촌들, 친일파 세력, 쿠데타 세력들에게 돌을 쏘던 것으로 기관총질을 해대는 바람에 죽은 조카들의 울음소리도 함께 섞여 있을 것이다.

어차피 이 땅에서 백성의 목숨은 천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이 아직도 끝없는 겨울의 굴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살아남은 자들도 세월이 흐를수록 천박해지고, 그들이 한겨울의 온기를 모아놓은 '사랑채'는 더 긴긴 겨울 밤 속으로 빨려들어 가라앉는다. 사계절 겨울인 고향이 싫어 떠난 이들도 추위의 형벌에서 아주 벗어나지 못한다.

혹 결모습은 나아 보일지 모르나, 그들 역시 형벌을 사는 데는 예외가 아니어서, 흐르는 세월과 함께 떠돌며 천박해진다.

이 긴긴 겨울을 조금씩이나마 과거 쪽으로 밀어 보내야 할 고향 강물은 정작 깊은 물속에 멈추어 깊어지고 만다.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바람을 이겨내고 당당히 새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소통이 가능한 쉬운 시를 옛날 시로 치부해버리는 요즘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이야기 시의 한 장르를 열어가는 시인의 노력이 돋보인다.

정양(1942-) 시인의 백색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린다. 강상운 시인, 동국문학인회 사무국장

北抗, "북쪽 사막에 맞서 버틴다"

강호덕 교수 초속성 포플러 품종 개발 사막화 확산 방지에 큰 기여

우리학교 산림자원학과의 강호덕 교수가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의 척박한 환경에서 한 해에 4m 이상 자라는 초속성 포플러 품종 '북항'을 개발했다. 강호덕 교수가 지은 '북항(北抗)'이라는 이름은 '북쪽사막에 맞서 버틴다'는 의미이다. 강 교수는 이 성과로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06년 사막, 사막화 방지의 해'를 맞아 개최된 사막화·황사 방지 토론회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의 사례 소개'라는 주제발표를 하기도 했다.

계 강 교수 팀의 연구 목표다. 덩커우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약 10분의 1인데다 연평균 기온은 7.6℃, 한겨울엔 영하 30℃까지 떨어지고, 토양은 허영계 소금이 보일 정도로 염도가 높다.

보통 나무라면 금세 말라비틀어지는 이런 환경에서 잘 자라는 품종을 얻기 위해 연구팀은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포플러 품종을 들여와 선별한 후 현지에서 적응시키고, 실험실에서 생명공학 기법을 적용해 품종을 개발했다.

그 결과 중국 포플러를 개량한 '북항' 품종은 놀라운 성장속도를 보였다. 또한 내한성 시험에서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고, 영하 35℃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품종은 우리나라 기후조건보다는 중국 사막에서 감질 이상 잘 자랐다.

황사현상은 일부 사막지역 국가에 한정되지 않은 국경을 초월한 환경



황사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포플러 품종 '북항'의 1년생.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강 교수 팀의 '북항' 개발은 이런 황사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는 조림사업의 한 획을 그은 것이다.

이번 연구사업에서 수행한 건조지역 조림수종 개발 연구를 기초로 양자·다자간 협약 이행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사막화 방지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한 임목을 수혜국에 지원할 수 있어 피해당사국 및 지원국 모두 경제적 이득이 창출될 것으로 판단된다.

강 교수는 향후 이번 연구결과를 이용해 건조지역에서 성장이 왕성한 신종 나무를 개발해 국제적으로 활성화될 사막지역 조림사업에 지구

환경금융(GEF), 사막화방지협약(CCD),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사막화 확산방지에 기여하여 우리나라에 연중 찾아오는 황사현상을 봉쇄하는 데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연구소를 찾아서 - ② 사회과학연구원

학제간 공동사업으로 사회과학 제분야 연구 담당



우리학교 사회과학연구원(원장=정기섭·행정학)은 사회과학 제 분야에 관한 연구 활동을 담당하는 곳으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는 곳이다.

사회과학연구원은 1965년 법정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1996년 당시 7개의 연구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다. 본 연구원의 활동 내용을 좀 더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경제·행정·법·사회·문화·환경·지역 등 사회과학 제 분야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연구, 국내외 학술단체연구소 및 연구기관과의 학문적 교류의 증대, 정기 간행물(사회과학연구) 발간, 학술용역사업 및 출판사업, 연구세미나 및 학술 심포지엄 개최, 특별강연회 개최, 학생의 연구 활동 지도 및 학술지원 등을 하고 있다.

본 연구원 산하에는 정치경제 연구부, 사회조사 연구부, 공간행정 연구부, 정책문제 연구부, 지역발전 연구부, 유럽 연구부 등 6개의 전문 연구부를 두고 있다. 이 6개의 연구부는 연구 특성상 정치외교학·사회학·경찰행정학·행정학·생명자원경제학 등의 각 전문 연구진이 포

진하여 연구부를 이끌고 있다. 연구원 산하 연구부는 인접 학문 및 각 부서 간 공동연구 등 학제 간 연구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원의 큰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사회과학연구원의 간사인 최응렬(경찰행정학) 교수는 "매년 학술진흥재단에 기초학문 육성지원사업에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있다"며 올해의 첫 번째 중점 계획으로 꼽았다. 둘째로는 연구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사회과학연구'를 학술진흥재단에 등재 신청하여 공인 학술지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과학연구원 산하 6개의 연구부가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보다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숙원 객원기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과정

일 내에 들려줄 반가운 소식은 3월 말 혹은 4월초에 연구원 단독 홈페이지가 구축된다는 점이다. 홈페이지 개설로 교내는 물론 대외적으로 홍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함께 다각적으로 적극적인 활동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롭게 단장하여 문을 열 연구원 홈페이지에 대해 축하의 인사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원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웅골차게 탄탄한 실력과 능력이 배양되어 있는 사회과학연구원에게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는 것은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중앙도서관 신착도서

우리시대의 상식론 박호성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2006.



이 책은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갈등의 모습과 원인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그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한 자료이다. 계급문제와 민족문제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한국적 제3의 길'을 제안한다. 목차를 한번 훑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 논하고 있는 것은 해방과 통일, 한국사회의 현주소, 역사의 나

침반, 인간과 자연 등 무거운 주제이지만 실제 소단원에서는 그런 주제들을 실생활 속에 녹여내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이야기나 잔잔한 에피소드들이 아주 풍부한 예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 혼란 속에서 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들에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더해주는 사회과학 수성특이 라고 보면 정확할 듯. 사회과학실 지정도서.

과학과 기술로 본 세계사 강의 제임스 E. 매클란 3세 지음 / 전대호 옮김 / 모티브북, 2006.



과학과 기술을 통해 세계사를 살펴보는 입문서. 선사시대부터 현대 과학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기술의 역사를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명쾌하게 다룬 책이다. 이 책은 선사시대의 인류가 최초의 돌 도구를 만든 때로부터 원자폭탄에 이르기까지 과학, 기술과 관련된 역사적 내용들을 집대성했다. 서양 과학 이외에도 고대과 중세의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 그 밖에 아시아 지역은 물론, 콜럼버스 이전 아메리카의 기술과 과학까지 함께 정리하였다.

중국 문명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서양 중심적인 기존의 과학사와 세계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어, 그동안 올바른 위상을 찾지 못하던 동양과 이슬람의 역사적 제자리를 찾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자연과학실 지정도서.

우리말 알리는 문화전도사 '한글교실'

우리학교 재학생 15명으로 구성 ...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기회 제공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들도 급증하고 있는 등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다. 우리학교 해외봉사단 경험자들이 모여 구성된 '한글교실'에서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한글교실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작년에 중국 사천 지역 해외 봉사 단원으로 활동을 하며 △컴퓨터 △한국어 △태권도 △사물놀이 △레크리에이션 △한국사 등의 내용으로 사천 대 학생들과 문화를 교류한 15명의 우리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진우(정보관리4) 회장은 "봉사에 원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봉사를 다녀와서 두 달여의 준비기간 끝에 만들었다"고 밝혔다. 녹십자, 국제재해대책기구, 국내외의 사무봉사, 수입 기금행사 등 대부분의 선생님이 해외봉사 이전에도 봉사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글교실은 지난 1월부터 매주 토요일 11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과정으로 나누어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급반=유용하고 쉬운 기초 한국어회화 중심의 반복학습

△중급반=다양한 어휘 습득과 발표능력향상에 중점을 둔 토론 △고급반=어휘·문법과 한국어 능력시험대비 및 토론 등으로 각 담당선생님을 두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보여준다. 매달 4번째 주에는 야외수업, 영화감상, 봉사활동 등 이벤트 수업을 하기도 한다.

미국, 호주, 베트남, 태국, 일본, 중국 등 한글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국적은 매우 다양하다. 고급반 히로미(일본·29세) 양은 "다른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한국 대학생들의 생각과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고, 중급반 유키(일본·27세) 양은 "여러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한국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이벤트 수업이 인상적이다"고 말했다.

초급반을 담당하고 있는 석옥(건축공4) 군은 한글교실은 "일방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닌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에 대해서 김현수(국제통상4) 군은 "물론 취지는 좋지만 학업인정으로 인해 오히려 봉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



지난 1월 28일 한글교실 창단 이후 첫 이벤트데이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모습.

다"며 순수한 봉사의 중요성에 대해 우려했다. 앞으로 한글교실은 반을 좀 더 세분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홍보하며, 매년 한 번씩 선생님을 중원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선사인(문장4) 교장은 "현재 동아리 형식인 가는 나지 않았지만 기한서를 제출해서 학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하나의 커뮤

니티 활동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시작 단계인 한글교실이 아이টে임을 선정한 수업방식과 난이도를 고심하던 초심을 잊지 않고, 꾸준한 홍보를 밑바탕으로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문화 전도사'로 굳게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이웃에 대한 배려



정 병 조
문과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어차피 사람들은 '더불어' 살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삶을 '만남' (Encounter)이라고 규정할 안리 드 루바크는 여전히 신선하게 느껴진다. 모여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속의 질서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불협화음은 이 건강한 관계들을 무너뜨릴 때 생기는 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윤리적 동물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금수보다 못한 양면성을 지녔다는 언급은 없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는 선진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다. 또 그 선진화의 기준이 GNP 등 돈으로만 환산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선진화의 선결요건은 경제적 풍요이다. 그러나 경제적 풍요는 정신적 가치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제 목을 다한다. 도덕시험을 잘 친다고 반드시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선진국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그 보이지 않는 가치세계로의 침잠(沈潛)을 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

혹자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이 농경적 사회질서 속에서 형성된 고리타분한 질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은 '해석'의 문제이지 '이념'만은 아니다. 전통적 가치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시사 하는 바를 묻고, 또 그 현실적 응용을 도모하는 일이 지식인의 태도이다.

전통적인 한국인의 가치관은 충효의식·가족의식·명분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요즘 우리들을 우물하게 하는 '한류' (韓流)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와 같은 한국적 가치가 보편적인 공감을 얻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적 가치관을 관통하는 흐름은 정서요, 따스함이며, 모성분능이다. 선진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있고 살던 일, 퇴색한 옛 사진 속에 묻어있는 잔영(殘影)같은 그리움이 바로 한류의 근원이다. 한국인에게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고향, 혹은 어머니처럼 언제나 푸근함을 상징한다. 우리는 선진화를 지향하면서 민주화를 이룩하였다. 가부장적인 질서 대신에 남녀평등을 이루었고, 권위주의적 관료 대신에 봉사라는 행정이미지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그 외중에서 대가족해체를 겪었고, 지켜야 할 권위마저 쓰레기통에 처넣는 천민(賤民)주의를 보편화하고 말았다.

물론 오늘의 혼란이 선진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의 문화적 진보는 결코 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과거에로의 회귀(回歸)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문명의 이기(利器)가 비인간화를 초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도 없애고, 전기도 끊고, 컴퓨터도 켜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전통적 가치의식 위에 미래문화를 포장하는 새로운 의식전환이 전개되어야 한다. 새롭다는 것은 없던 것을 창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늘의 문제를 전통의 잣대로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야말로 건강한 조직의 기본여건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웃이 없으면 내가 없기 때문이다.

취업지원센터 활용Tip

우리학교 취업지원 홈페이지 ② <http://academic.dongguk.edu/job/>

곳곳에 숨어있는 유용한 정보 잘 활용하자

지난 호에 이어 취업지원센터의 각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공지사항은 취업지원센터의 각종 신청프로그램, 기업설명회 및 리크루팅 일정, 급구나 다수인원이 필요한 부업 안내, 교내외 취업세미나, 교내외 인턴쉽, 기업에서 요청하는 공지사항 등 취업에 관련된 다수의 정보를 알려주는 메뉴이다. 취업정보는 교내외에서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되는 모든 채용정보를 매일 수시로 공지하는 메뉴이다.

부업정보는 취업정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접수되는 교내외의 아르바이트 정보를 매일 수시로 공지하는 메뉴이다. 구인등록메뉴는 취업과 부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로그인 없이 구인자가 취업 또는 부업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이며 관리자 승인 후 취업부업정보를 통해 보여지게 된다.

취업가이드는 취업뉴스, 인사담당자 이야기, 취업특강, Click 서류전형, Click 면접전형, 기업별 모집요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문기사 중 취업에 관련된 정보와 취업에 관련된 동영상, 입사전형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안내해주는 메뉴이다.

자료실은 면접후기, 취업후기, 취업행사후기, 기업별 면접유형, 소장자료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배들의 기업별 취업 및 면접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와 취업지원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Q&A는 취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메뉴이다.

사이버상담실은 취업지원센터로 방문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한 메뉴로 진로고민을 위한 상담게시판과 취업고민을 위한 상담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실명으로 상담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상담만으로 부족한 학생들은 방문상담을 할 수 있는데 방문상담 예약하기에서 비어있는 상담시간을 확인하고 예약을 하면 상담원이 가능한 일정과 시간대를 알려준다.

취업지원센터소개는 취업지원센터의 연락처와 담당자, 업무들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다. 취업프로그램은 취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을 알아볼 수 있다.



취업관련사이트는 취업준비와 경력개발을 위해서 알아야 할 주요 사이트의 주소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스터디그룹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는 취업스터디그룹에 가입한 학생들이 운영하는 그룹홈페이지로써 메뉴를 볼 수는 있지만 참여하기 위해서는 취업스터디그룹에 가입을 해야 하며 금년에는 더욱 많은 스터디그룹을 모집할 예정이므로 공지사항을 자주 살펴서 취업준비에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

취업홈페이지 곳곳에 정보가 숨어있으므로 놓치지 말고 자주 들어가면 생각지 못한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 지 흥
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팀 상담원

동국대학교 외국어 교육센터 강좌 안내

YBM eLti학원의 토익강사가 펼치는 토익강좌 **막판 4주 뒤집기 뉴토익 대비반** 종료감상 갈 필요없이 교내에서 토익 끝내기!!

* 개강 : 2006. 3. 27(월)
* 접수 : ~ 3. 27(월)까지 / 접수처 : 동국대 1층 접수데스크, 구내서점 및 국제교육원

강좌명	막판4주 뒤집기 반	뉴토익 대비반
시 간	오전 8:00~8:50	오전 9:00~9:50 오전10:00~10:50
강 의 실	동국관 L308	동국관 L308 학림관 J305
강의기간	50분(월~목), 4주	50분(월~목), 9주/ 교차수강가능
강 사	이윤우(L/C)/ 박원(R/C)	
교 재	토익 실전마침표 520제(현행토익) 토익백서(저자직강)	
	R/C+L/C+문법	
강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토익 대비반) ▶ 개편시험 전에 Speedy한 수업 진행으로 최종 실전에 대비하는 핵심정리 강의 ▶ 많은 문제를 짧은 시간에 해결하는 실전능력 배양 ▶ 단시간에 고득점 획득에 중점 ▶ 수강생별 취약한 Part별 집중 훈련 ▶ 실제 토익문제를 직접 분석 ▶ 적용률 높은 강의 	
수 강 료	70,000 (교재 및 Handout 무료제공)	70,000 (교재 및 Handout 무료제공)

* 특전: 수강생 무료 모의토익 테스트 실시!
* 토익백서 L/C 교재 무료증정(선착순 100명)
* 막판 4주 뒤집기반 교재 무료제공!
* 4월 정기시험대비 무료 특강
* 5월 뉴토익시험대비 문제풀이 특강 무료제공

1월 월어민과 함께하는 테마가 있는 특별강좌

* 개강일 : 2006. 3. 30(목)
* 등록일 : 2006. 3. 22(수) ~ 30(목) 5:00PM (해화관 1층 국제교육원)

◎ 일상적인 회화 수업을 이겨온 분들을 위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는 토익 수업을 즐기자 Media TOEIC	아일랜드 문화 탐방 Understanding Ireland
주1회 2시간 수업 (택 1) (목) 9:00-11:00AM (금) 11:00-1:00PM	주1회 2시간 수업 (화) 6:00-8:00PM
4주	16주
강의실 L312 (동국관)	G205 (해화관)
강사 Michael	Mckeogh
대상 영어수준이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토익형식 완전 탈피" 점수만 향상되는 TOEIC이 아닙니다. 향상된 점수만큼 실생활 속 영어능력도 올라갑니다. ▶SEPT 평가연구원, 출판사 편집장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원어민 강사님이 진행하는 실전토익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토익 감각 익히기 (라디오, TV, 음악, 비디오) ▶청해/독해/말하기 부분이 포함된 종합적인 학습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일랜드 문화 속으로 쏙쏙 빠져볼까요~?" ▶아일랜드 역사, 문화, 문법 및 예술분야 ▶한국과 아일랜드의 차이를 통해 아일랜드에 대한 이해 증진 ▶다양한 수업자료 활용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수강료 ₩70,000	₩95,000

▶등록안내
접수처 동국대학교 해화관 1층 국제 교육원 사무실
문의
문의전화 : 2260-3590 / 3471 (문의시간: 오전 9:00 ~ 오후 5:00)
1. 방문접수 : 신청-은행수납
2. 이메일접수 : ie@dongguk.edu : 이메일(신청강좌, 이름, 학번, 학과, 전화번호표기) - 은행 송금(본인이름)
* 수강료 납부계좌 : 조흥은행 371-03-012083 (예금주: 국제교육원)

☞ 1. 동국대 재학생 외 외부수강생 (대학원생 포함)은 수강료 1만원 추가
2. 환불-개강 전 100%환불, 개강 후 3일 이내 80%환불, 개강 3일 후 환불 불가

Global ABC TOEIC

* 2차 개강일: 2006. 4. 3 (월) / 3차 개강일: 추후 공지
* 접수마감 3. 30(금)까지 / 등록: 국제교육원
* 수강료: ₩20,000/학기(약 13주)
"저렴한 가격, 효율적인 나만의 학습을 원하신다면! Global ABC TOEIC 적극추천"

- 효율적인 학습법을 활용한 목표점수대로의 레벨 상승을 목표
- 청취 및 독해 그리고 빈번히 출제되는 어휘 학습 유도
- 정해진 일정에 따른 진단학습, 집중학습, 분석정리, 종합문제풀이 등 실시
- 특히 개인의 취약 파트/ 유형 및 레벨 업 학습을 통해 자신만을 위한 토익강좌를 이수가능
- 더욱 효과적인 학습성취를 위해서 동영상 강좌(안박사 TOEIC PLUS LC)가 추가로 제공

◆ 동국대학교 사이트 <http://www.cattoec.com/cybera/dgu/>



- * Computer Adaptive Testing 방식 적용
- 동영상 강좌 제공 (안박사 TOEIC PLUS LC)
- 취약 파트/유형 & 레벨 업 학습
- 각종 모의평가 및 자기진단평가 가능

- * 동영상 강좌 (안박사 TOEIC PLUS LC)안내 - 박유현 선생님
- ▶토익 LC의 각 파트에서 상황에 따라 빈출되는 실생활어휘를 학습
- ▶파트별 유형 분석과 핵심전략을 파악하는 오늘 강의의 통해 토익 초중급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성적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강의 구성
- ▶파트별 핵심전략 TIP & 파트별 빈출어휘 제공
- ▶LC 파트 실전어휘노트 제공!
- ▶LC 파트 핸드아웃(학습자료) 제공!

◆ 개인별 분석 리포트



- * 자기 진단 및 평가 가능
- 실전 모의 평가 (1학기 당 3회 제공)
- 진단 테스트 1회 제공
- 분석 report통한, test 및 homework 결과 열람